
「2025 제주의 사회지표」 결과 요약

2025. 12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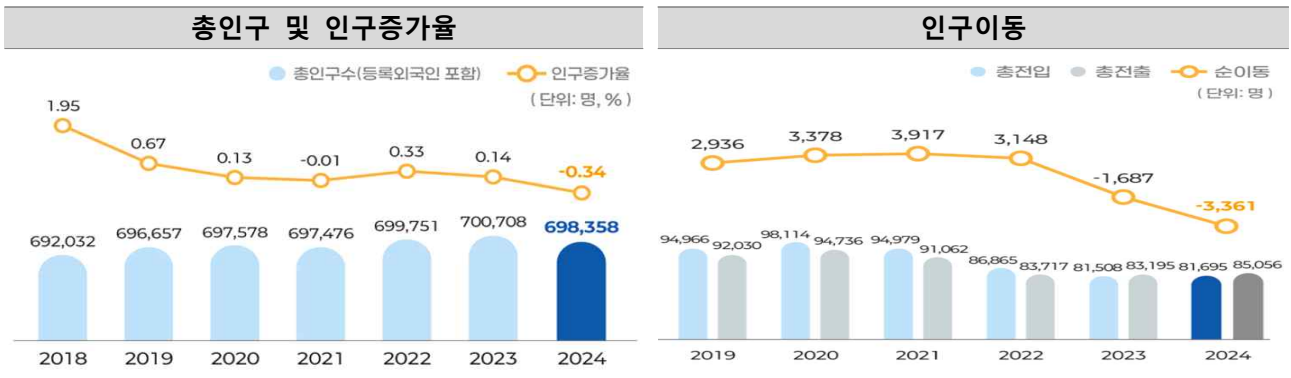


제주특별자치도
(인구정책담당관)

1 인구

◆ 2024년 제주 총인구 및 인구증가율은 2023년 대비 감소

- **(총인구)** 2024년 총인구는 698,358명으로 2023년(700,708명) 대비 0.34% 감소
- **(합계출산율)** 2024년 합계출산율은 0.83명으로 전국(0.75명) 대비 높은 수준이나, 2014년(1.48명) 이후 지속 하락
- **(순이동)** 2024년 순이동 인구는 -3,361명으로 2023년(-1,687명) 대비 1,674명 감소



2 삶에 대한 만족도

◆ 2025년 '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', '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' 및 '행복감'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, '걱정' 보다 '행복감'을 더 느낌

- **(만족도)** 2025년 도민의 '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'은 10점 만점에 평균 6.41점, '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'은 평균 6.48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
 - * 자신의 삶 만족감: ('20) 6.17 → ('21) 6.28 → ('22) 6.55 → ('23) 6.37 → ('24) 6.55 → ('25) 6.41점
 - * 지역 생활 만족감: ('20) 6.32 → ('21) 6.44 → ('22) 6.65 → ('23) 6.49 → ('24) 6.59 → ('25) 6.48점
- **(행복감)** 2025년 도민이 어제 느낀 '행복감'은 10점 만점에 평균 6.39점이며, 부정적 정서인 '걱정'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평균 4.23점으로 걱정보다는 행복감을 더 느낌
 - * 행복감: ('20) 6.20 → ('21) 6.29 → ('22) 6.50 → ('23) 6.31 → ('24) 6.44 → ('25) 6.39점
 - * 걱 정: ('20) 4.52 → ('21) 4.64 → ('22) 4.47 → ('23) 4.28 → ('24) 4.34 → ('25) 4.23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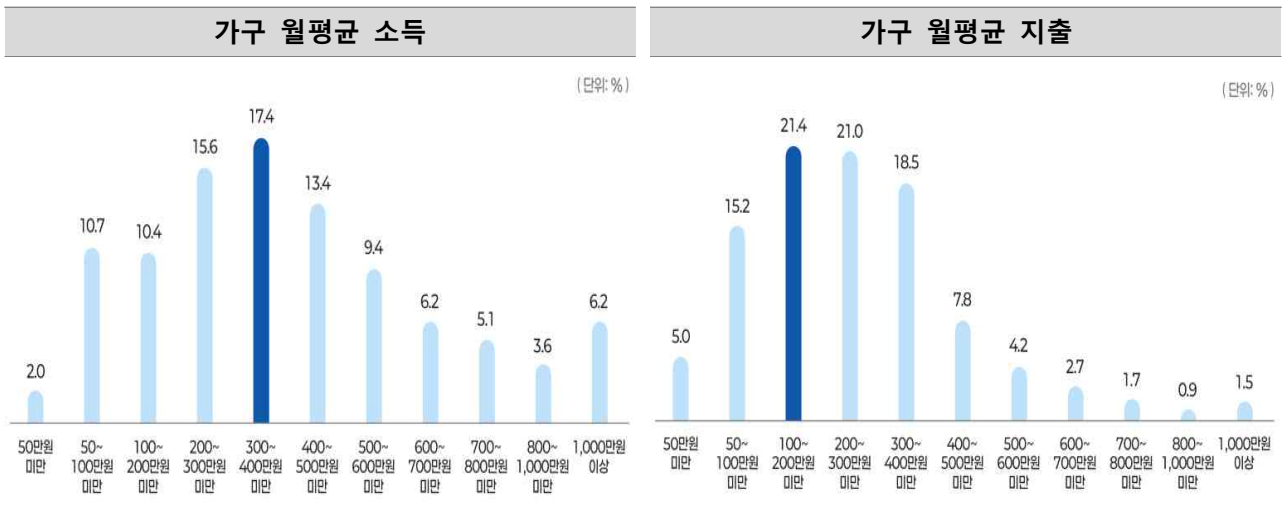
3 소득 · 소비 · 자산

- ◆ 가구 월평균 소득은 '300~400만원 미만', 지출은 '100~200만원 미만'이 가장 많음
- ◆ 가구의 49.1%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, 부채의 주원인은 '주택마련'

□ (가구 월평균 소득) 가구 월평균 소득은 '300~400만원 미만'(17.4%), '200~300만원 미만'(15.6%) 등의 순으로 많고, 소득수준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.80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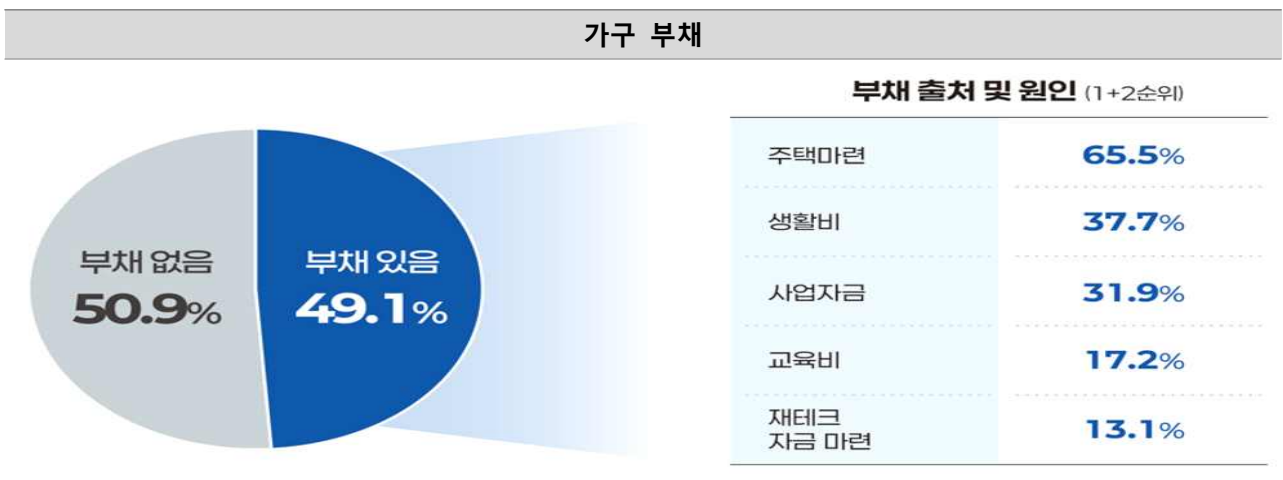
- 2024년에는 '200~300만원 미만' 비율(18.7%)이 가장 높았던 반면, 2025년에는 '300~400만원 미만'(17.4%)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

□ (가구 월평균 지출) 가구 월평균 지출은 '100~200만원 미만'(21.4%), '200~300만원 미만'(21.0%) 등의 순으로 많고, 소비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.88점임



□ (가구 부채) 도내 부채가구 비율은 49.1%로 2023년(41.4%) 대비 7.7%p 증가

- 부채의 주원인(1+2순위)은 '주택마련'(65.5%), '생활비'(37.7%) 등의 순으로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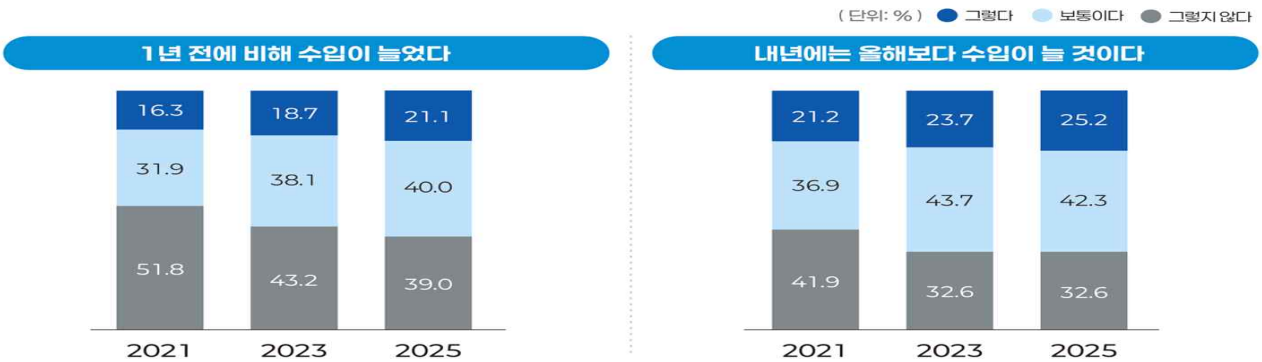


4 노동

- ◆ 근로소득은 '200~300만원 미만'이 가장 높게 나타남
- ◆ 현재 수입이 '1년 전에 비해 늘었다'는 응답은 21.1%, '내년에는 올해보다 수입이 늘 것이다'라는 응답은 25.2%로 나타남

- **(근로소득)** 최근 3개월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'200~300만원 미만'(34.4%), '300~400만원 미만'(22.6%), '100~200만원 미만'(14.7%) 등의 순임
- **(근로자의 수입 변화)** 현재 수입이 '1년 전에 비해 늘었다'는 응답은 21.1%로 2023년(18.7%) 대비 2.4%p 증가했고, '내년에는 올해보다 수입이 늘 것이다'라는 응답 또한 25.2%로 2023년(23.7%) 대비 1.5%p 증가함

근로자의 수입 변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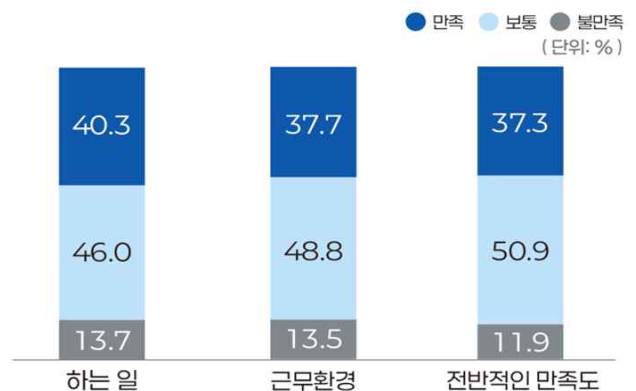
- ◆ 구직활동 시 애로사항은 '일자리수 자체의 부족'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

- **(구직활동 시 애로사항)** 구직활동 시 어려움으로 '일자리수 자체의 부족'(36.4%), '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'(33.0%) 등의 순으로 높았고, '어려움이 없었다'는 응답은 8.9%로 2021년(6.6%) 이후 지속 증가함

구직활동 시 애로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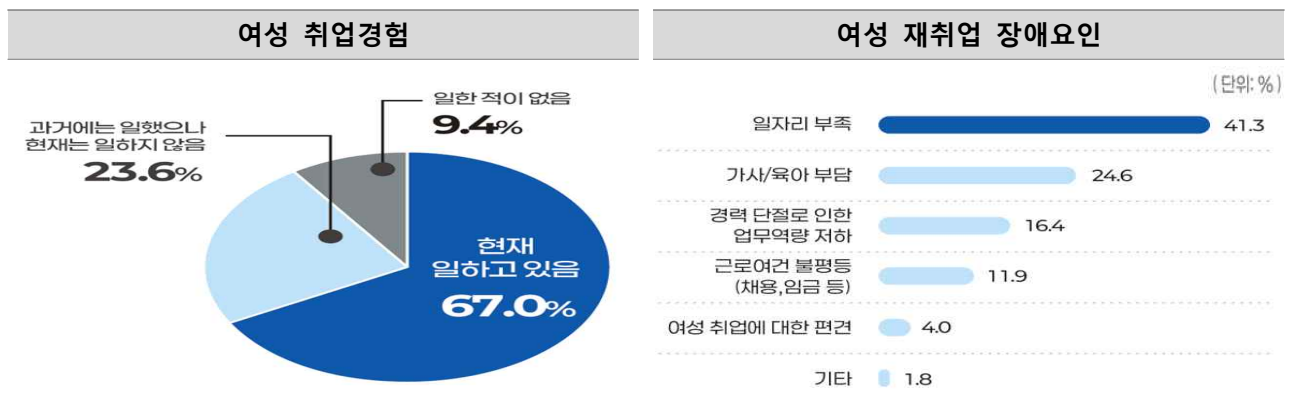


일자리 만족도



- ◆ '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'은 67%, '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'은 9.4%, '과거에는 일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는 여성'은 23.6%로 나타남
- ◆ 여성 재취업 장애요인으로 '일자리 부족'이 41.3%로 가장 높음

- (여성 취업경험) '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'은 67.0%로 2023년(61.7%) 대비 5.3%p 증가하였으며, '과거에는 일했으나 현재는 일하지 않는 여성'은 23.6%로 2023년(28.4%) 대비 4.8%p 감소하였음
- (여성 재취업 장애요인) 여성의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'일자리 부족'(41.3%)이 가장 높았고, '가사·육아 부담'(24.6%), '경력 단절로 인한 업무역량 저하'(16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


5 교육

- ◆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'보육환경 만족도'(3.34점)가 가장 높고, '공교육 환경 만족도'(3.33점), '학교이외 교육 충분도'(3.08점), '평생교육 기회 충분도'(3.06점) 순으로 나타남

- (교육환경 만족도) 교육환경 중에서 미취학 아동의 '보육환경 만족도'는 3.34점, 초·중·고 학생에 대한 '공교육 환경 만족도'는 3.33점, '학교이외 교육 충분도'는 3.08점으로 나타나 5점 만점에 3점 이상의 만족 수준을 보임
 - 25세 이상의 도민이 응답한 '평생교육 기회 충분도'는 3.06점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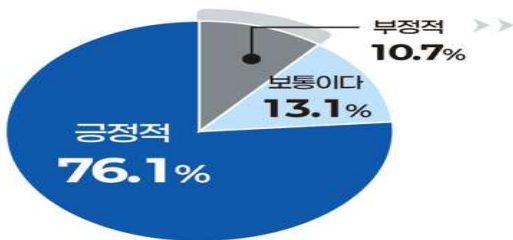


6 주거와 교통

◆ 제주도 거주기간은 평균 37.3년이며, 향후 지속 거주 희망자는 76.1%를 차지

- (도내 거주기간) 도민이 제주도에 거주한 기간은 '30년 이상'이 58.2%로 가장 높고, '20년 이상~30년 미만'(13.7%) 등 순으로, 평균 거주기간은 37.3년으로 나타남
- (향후 거주 의향) 10년 이후에도 제주도에 거주하겠다는 비율은 76.1%로, 그렇지 않다는 비율(10.7%) 보다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남
 -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로는 '새로운 환경에 살고 싶어서'(33.5%), '자녀 또는 본인의 교육을 위해서'(19.2%), '기존의 거주지로 돌아가고 싶어서'(17.1%) 등 순임

향후 10년 이후 제주도 거주 의향



향후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



◆ 제주 거주기간 10년 미만인 도민의 현 거주지 선택이유로 '자연환경이 좋아서'(69.7%) 라는 응답이 2023년에 이어 가장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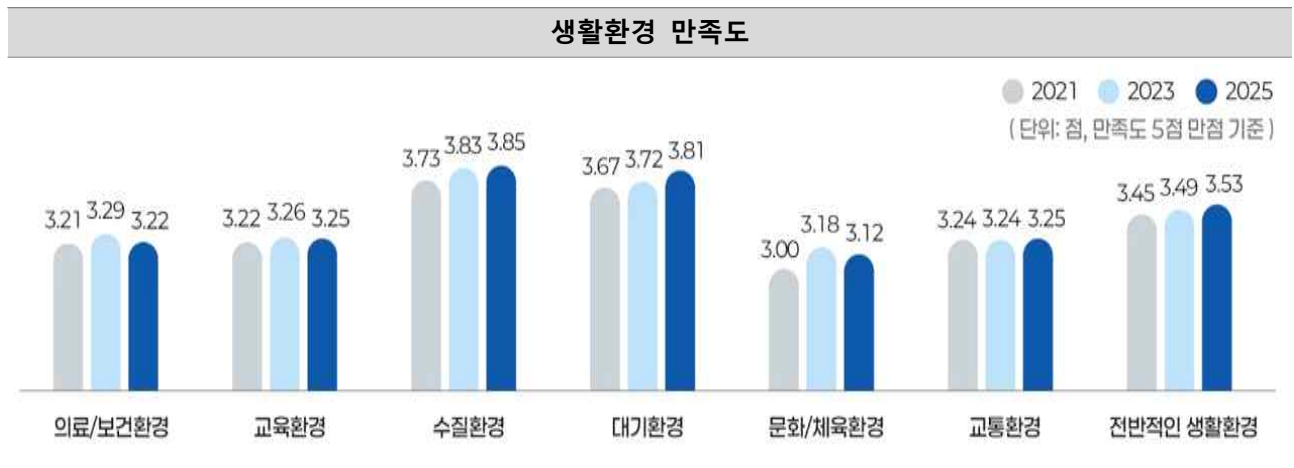
- (거주지 선택 이유) 제주 거주기간 10년 미만인 도민이 현 거주지를 선택한 주요 이유(1+2순위)로는 '자연환경이 좋아서'(69.7%) 라는 응답이 2023년(65.2%)에 이어 가장 높았고, '직장과의 거리를 고려해서'(40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
 - 이주 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'자연환경'(4.31점), '행복감'(3.83점) 등의 순으로 높음

제주 거주 10년 미만 도민의 현 거주지 주요 선택 이유



◆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.53점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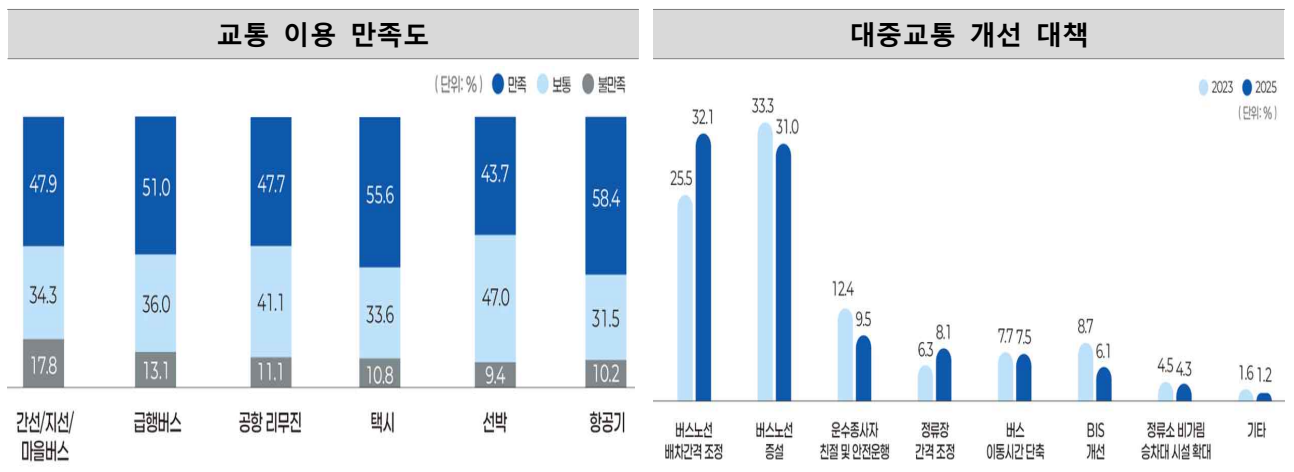
- (생활환경 만족도) 전반적인 생활환경 만족도는 2023년(3.49점) 대비 0.04점 상승한 평균 3.53점이며, 모든 생활환경 항목에서 평균 3점 이상의 만족 수준을 보임
 - 특히, '수질환경'이 3.8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'대기환경'(3.81점), '교통환경'(3.25점)에서 만족도 점수가 2023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



◆ 교통 이용 만족도로 '항공기'에 대한 만족 비율이 58.4%로 가장 높음

◆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'버스노선 배차간격 조정', '버스노선 증설' 선호

- (교통 이용 만족도) 교통 이용 만족도는 '항공기'(58.4%), '택시'(55.6%), '급행 버스'(51.0%), '간선·지선·마을버스'(47.9%), '공항 리무진'(47.7%), '선박'(43.7%) 순 임
- (대중교통 개선 대책)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'버스노선 배차간격 조정'과 '버스노선 증설'이 각각 32.1%, 31.0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(통근·통학) 통근·통학을 하는 도민은 77.4%(통근 70.4%, 통학 7.0%), 평균 소요시간은 편도 23.57분임. 주요 통근·통학 수단은 승용차(62.5%), 도보(15.9%) 등의 순으로 높음



7 문화와 여가

◆ '전반적인 여가활동' 및 '문화여가시설 접근성과 충분도'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하락

- **(여가활동 만족도)** 전반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.92점으로 2023년(2.96점) 대비 소폭 하락
 - 여가활동이 저조한 이유로 '직장일로 인한 시간 부족'(42.3%)이 가장 높음
- **(문화여가시설 접근성과 충분도)** 문화여가시설 접근성과 충분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.85점으로 2023년(2.90점) 대비 소폭 하락
 - 가까운 곳에 확충되어야 할 문화여가시설(1+2순위)로 '문화센터·지역문화원'(53.1%), '체육시설 및 경기장'(44.7%), '공연장·야외음악당'(22.8%) 등의 순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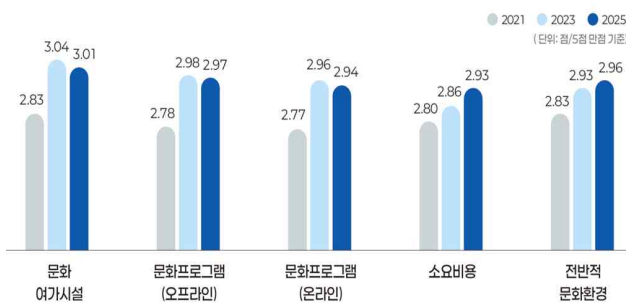
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및 문화여가시설 접근성과 충분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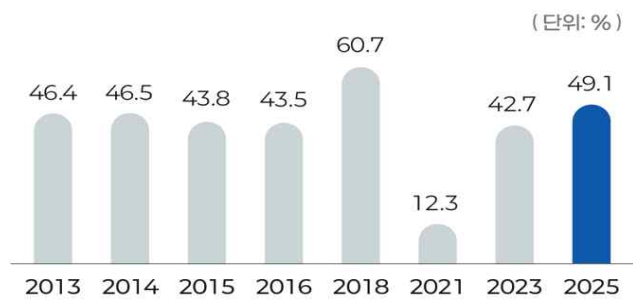
◆ 문화환경 만족도 중 '소요비용'과 '전반적 문화환경' 항목의 만족도는 소폭 상승 ◆ 지난 1년동안 지역축제에 참여한 도민은 49.1%로, '꽃축제', '먹거리 축제' 선호

- **(문화환경 만족도)** 문화환경 만족도 중 '소요비용'과 '전반적 문화환경'에서 만족도가 각각 2.93점, 2.96점으로 2023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, '문화여가시설'(3.01점), '온라인 문화프로그램'(2.94점), '오프라인 문화프로그램'(2.97점)의 만족도는 2023년 대비 소폭 하락함
 -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화환경으로 '문화여가시설 및 공간 확충'(63.2%)이 가장 높으며, 그 뒤를 이어 '공연 형식의 다양화'(12.2%) 등의 순임
- **(지역축제)** 지난 1년간 지역축제에 참여한 도민은 49.1%로, 2023년(42.7%)에 비해 6.4%p 증가했으며, 선호도(1+2순위)는 '꽃축제'(49.7%), '먹거리 축제'(48.8%) 등의 순임

문화환경 만족도



지역축제 참여 여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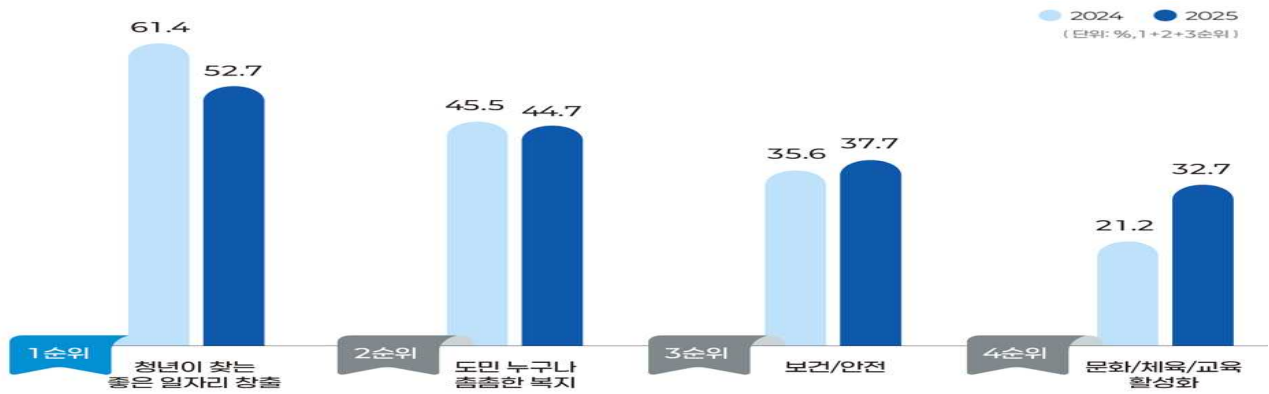
8

지역특성

◆ 도민이 생각하는 향후 제주도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이 필요한 정책으로 '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'이 1순위를 차지

□ (중점 추진정책) 향후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(1+2+3순위)은 '청년이 찾는 좋은 일자리 창출(52.7%)', '도민 누구나 촘촘한 복지(44.7%)', '보건·안전(37.7%)', '문화·체육·교육 활성화(32.7%)' 등의 순임

제주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



◆ 인구유입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 인식(45.6%)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, 생활인구 증가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 인식(46.2%)이 높음

□ (도내 인구유입) 인구유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(45.6%)은 2019년(24.2%) 이후 지속 증가 추세이며, 부정적 인식(17.5%)은 2019년(40.9%) 대비 23.4%p 감소

○ 인구유입 증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의 사유는 '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훼손'(46.2%), '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'(27.3%), '제주 문화정체성의 약화'(10.8%) 등의 순임

□ (생활인구 증가에 대한 인식) 긍정인식은 46.2%로 부정인식(17.8%) 보다 높음

도내 인구 유입 인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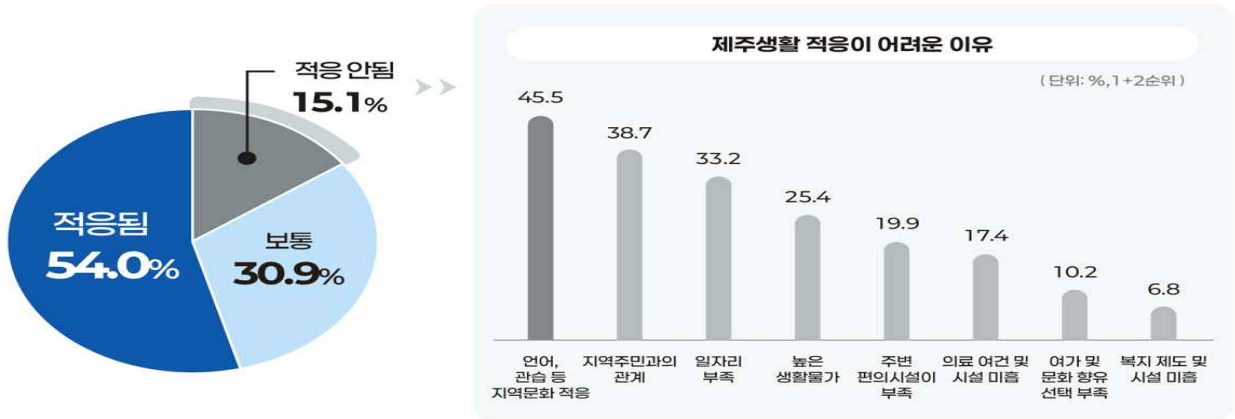
인구 유입 부정적 인식 이유



◆ 거주기간 10년 미만 도민의 54.0%가 제주 생활에 적응되었다고 응답

- (제주생활 적응) 거주기간 10년 미만 도민의 54.0%가 제주 생활에 적응됐다고 응답
 - 제주 생활에 적응되지 않은 이유(1+2순위)는 '언어, 관습 등 지역문화 적응'(45.5%), '지역주민과의 관계'(38.7%), '일자리 부족'(33.2%) 등의 순으로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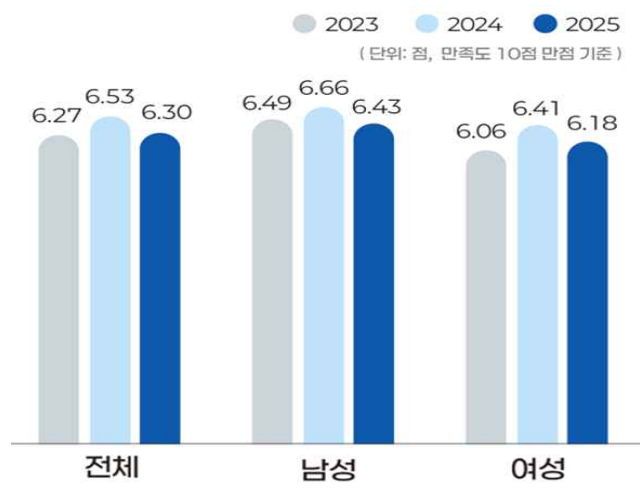
제주생활 적응 정도



◆ 본인의 성별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.30점이며, 본인이 속한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7.4%임

- (성역할 인식 만족도) 본인의 성별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.30점으로, 남성(6.43점)이 여성(6.18점)보다 성역할 인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
- (성역할 인식 수준) 본인이 속한 사회가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7.4%로 2024년(34.0%) 대비 3.4%p 증가함

성역할 인식 만족도



성역할 인식 수준

